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연구*

변종현**

《차 례》

- I. 머리말
- II.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 2-1. 역사적 사실의 기록
 - 2-2. 설화적 사실의 기록
 - 2-3. 역사와 설화의 통합
- III. 서동요의 기록화 양상
- IV. 맺음말

<요약문>

서동설화는 근본적으로 역사와 설화가 통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트로 바라보아야 설화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서동설화를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사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에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서도 입증되고, 미륵사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륵사터가 습지였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서동이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흩터미처럼 쌓여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라 여겨진다. 즉, 익산과 인접한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는 채금하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던 곳이 수십 곳이 남아있고, 지금도 금구면에서는 겨울철에 沙金을 채취하고 있다. 師子寺에 거주했다는 知命法師는 서동설화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현재 미륵산(용화산) 정상 밑에 있는 獅子菴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명법사가 거주했다는 師子寺와 같은 절임이 확인되었다.

서동설화에서 설화적 사실은 무왕의 탄생담과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 지명법사의 신력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武王은 法王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외아들이거나 후궁 출신 비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궁의 소생이라면 ‘어머니가 홀로 되어 못에 있는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왕이 용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한 것처럼 신이한 출생담을 가지게 되었다. 무왕은 역사적 인물에서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영웅적 인물로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서동설화는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무왕은 아버지인 법왕의 불심에 감화를 받아 익산 지역에 왕흥사(미륵사)를 세우게 된다. 왕흥사는 창건한지 34년만인 634년에 완성되었고, 당시 백제인들이 작성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설화적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당시 신라에서 적대국가인 백제에 선화공주를 시집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미륵사터인 연못을 知命법사가 하루밤 사이에 神力으로 메꾸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과 불교적 영험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즉 미륵사지는 발굴 과정에서 습지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미륵사터는 연못을 메꾸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知命법사는 불교의 영험과 이적을 보여준 고승으로 그려져 있다.

서동요는 사녀가 형식의 노래와는 다른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래이다. 초기 연구자들은 대체로 무왕이 창작한 노래로 보았으나, 후대 연구자들은 서동이라는 인물이 구비전승되던 동요에 서동과 선화공주를 넣어 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 노래를 서동설화 속에서 읽지 않고 노래 자체만을 가지고 부를 때에도 이 노래의 동요적 성격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현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인 ‘얼레췌레리’라는 노래와 비슷한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다. 서동요는 오랫동안 익산과 부여지방에서 구비전승되다가 일연스님에 의해 기록화되었는데, 노래말의 내용 가운데 ‘ㄱ乙’은 <삼국유사>의 같은 글자의 용례로 볼 때에 ‘알을’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서동요는 사랑의 주거나 사회 변혁을 예언하는 참요,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가 반영된 노래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불교적 성격을 가진 노래로 파악하여 선화를 미륵선화로, 서동을 미륵으로 이해하여 미륵하생 신앙을 표현한 노래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 역사. 설화. 서동설화. 서동요. 미륵사. 선화공주.

I. 머리말

서동설화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구비전승되다가 일연스님에 의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서동설화의 기록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삼국유사>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국유사>는 一然의 비문에 <삼국유사>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一然의 제자인 無極이 입적하기 전인 1322년 사이에 초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 초간 이후에는 중간(1394년)되면서 改刻되었고 1512년(중종 7년) 간행된 정덕본은 80% 이상 補刻하여 간행하였는데,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전하는 <삼국유사>의 편찬 과정을 살펴볼 때에 신라시대에 구비전승되었던 노래나 이야기의 모습이 제대로 기록으로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전 하던 노래와 이야기가 기록화되면서 1차적인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개각과 보각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설화 관계 기록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나 명백한 문헌 인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 김상현,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한국사연구』 38호, 한국사연구회, 1982.

古本云, 一本云, 鄉傳云, 諺云, 諺傳, 古傳云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古本이나 一本이라는 표현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헌들을 참고하였다는 표현으로 보이고, 鄉傳云, 諺云, 諺傳, 古傳云 등은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던 이야기를 채록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서동설화의 원천을 민간 전승에서 찾아보려는 연구도 있다. 즉, <삼국유사>의 무왕설화를 현재 구전되는 설화인 숲구이총각의 생금장 설화와, 일본의 炭麿小五郎설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이들 설화는 민간 전승으로부터 파생된 설화임을 밝히기도 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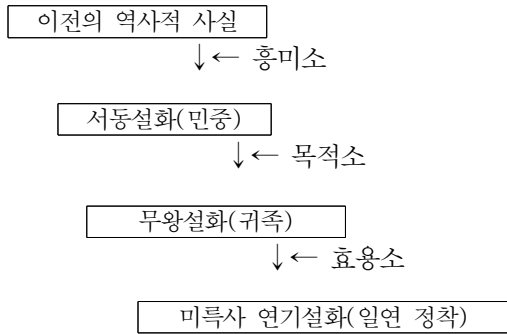
<삼국유사> 무왕조 기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史實로 해석하는 경우와, 설화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사찰연기설화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史實로 보는 경우는 백제 武王이나 東城王, 武寧王, 元曉 등과 관련시키고 있다. 설화로 해석하는 경우는 불교설화로써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주는 이야기로, 그리고 사찰연기설화로서는 彌勒寺緣起설화와 王興寺創寺記 등과 관련시키고 있다. 일연스님은 서동설화의 주인공을 古本에 나오는 武康王을 武王으로 수정시켜 놓았는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하던 중 2009년 1월 14일 1층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백제 왕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가람을 창건하고 己亥年(639)에 탑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미륵사가 무왕대에 완공되었고, 백제 왕후가 미륵사 창건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기존 연구 업적들을 고려하여 현재 남아있는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을 살펴보고 한다.

II.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2) 성기열, 「한일설화 비교연구의 일례」, 『고전문학연구』 1, 고전문학연구회, 1971.

서동설화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수록되어 있다. 口傳, 혹은 口演되는 구비문학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고 적절하게 변이될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서동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보려는 견해와 설화적 사실을 기록화 한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에 대하여 서동설화를 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기록화되었다고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³⁾



위의 단계를 고려해 볼 때에 서동설화는 처음부터 불교설화로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민중들의 꿈이 형상화된 서동설화가 형성되었고, 다시 귀족들의 설화인 무왕설화로 구전되다가 미륵사 연기설화가 첨가되어 일연스님에 의해 <삼국유사>에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사찰연기담은 본질적인 이야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구비전승 과정을 거쳐 연기설화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서동설화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화소가 결합된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백제 제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인데, 어머니가 과부로 못의 용과 관계하여 태어나게 되었고, 기량이 헤아리기 어려웠고 항상 마을 캐서 생활을 하여 서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3) 김학성,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2)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경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마를 주어서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서동요를 아이들이 부르니 동요가 경주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백관들이 극력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되었다. 왕후가 노잣돈으로 황금 한 말을 주었고 서동은 도중에 공주를 모시고 가면서 몰래 통하게 되었다. 서동의 이름을 안 연후에 동요의 징험을 믿게 되었다.

3) 함께 백제로 가서 왕후가 준 황금으로 생활을 활 계획을 세우니 서동이 황금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이 마를 캐던 곳에 진흙처럼 쌓여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선화공주의 제안으로 서동은 황금을 모아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신력으로 신라 궁중으로 보내고, 서동은 이로 인해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른다.

4) 하루는 왕과 부인이 사자사에 가려다가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서 미륵삼존이 못 속에서 출현하는 것을 보고 공경을 하고 그 곳에 큰 절을 짓기로 하고,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고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진평왕이 백공들을 보내 돕게 하였는데, 그 절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이상의 네 개의 상이한 화소의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로 구비전승되다가 일연스님에 의해 문헌에 정착되게 되었다. 백제 무왕조는 紀異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이편은 신화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서 종교적 상징과 사상을 중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설화적 사실의 기록을 나누어 살펴보고 서동요의 기록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역사적 사실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1. 역사적 사실의 기록

1) 무왕과 미륵사 창건

서동설화는 미륵사 창건의 연기설화라는 측면에 주안하여, 먼저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부터 찾아보기로 하겠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法王 즉위하자 12월에 살생을 금하게 하고, 민가에서 기르던 매를 놓아 주게 하고, 어럽 도구를 태워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2년(600)정월에는 王興寺를 세우고 승려 30인을 두라고 명을 했지만 재위 2년만에 세상을 떠나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신라에 대한 공격을 10여 차례 감행했고, 무왕 25년 이후에는 해마다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왕의 불심에 감화를 받아 익산 지역에 王興寺(彌勒寺)를 세우게 되는데, 王興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보면, 사찰의 건립은 왕권강화를 위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것이다.⁴⁾ 王興寺는 무왕 35년 이월에 낙성되었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미륵사 석탑은 동방 최고의 석탑이었다고 한다.⁵⁾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미륵사를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 딸인 선화공주가 함께 발원해 창건했다 했지만,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하던 중 2009년 1월 14일 1층을 해체하여 조사하던중 심주석 상면 중앙에서 사리공이 발견되고 내부에서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 금제사리봉안기는 백제 왕후가 가람을 창건하고 己亥年(639)에 탑을 조성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의 발원문이다, 원문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善因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불교의 동량이 되셨기에 능히 淨財를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

당시 백제인들이 작성한 사리봉안기에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창건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사리봉안기를 신뢰해야 한다면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 기록에 나오는 선화공주는 설화적 인물로 보아

4)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07~207쪽.

5) 미륵사 석탑은 절반 이상 붕괴되어 6층까지 일부가 남아있던 것을 1915년 일본인들이 콘크리트로 보강하였다. 이 석탑은 본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장대하고 석재를 사용하여 목조탑을 표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의 시원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인정받고 있다.

야 할 것이다. 위 기록에 나오는 沙宅 씨는 백제 8대 성씨의 하나로 사비성 천도를 지지했던 귀족중 하나이며, 좌평은 백제 최고의 관등이다. 따라서 무왕의 정비는 그 당시 좌평이었던 沙毛積德의 따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선화공주는 무왕의 정비가 아닌 후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사리봉안기에는 그가 창건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를 지을 때 신라 진평왕이 百工들을 보내 도와주었다고 하였는데, 무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라를 침공 하였던 것으로 보아, 무왕이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공주와 혼인을 하고, 미륵사 창건에 진평왕이 백공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미륵불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부처님으로, 무왕은 귀족세력들과 일반 백성들의 염원을 아우르기 위하여 미륵사 창건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2) 填池

배경설화에 의하면 미륵사터는 용화산 밑의 큰 못이었는데, 지명법사가 신력으로 하루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물론 불교의 영험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이지만 70년대 미륵사터를 발굴할 당시에는 터는 논과 밭이었다고 하며, 발굴 과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성토가 되어 있는 층 속에 빨흙층이 있고 그 속에 갈대잎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 미륵사터가 습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왕이 池龍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람을 창건하기 위하여 큰 못을 메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용의 아들인 무왕은 자장이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라 못을 메워 통도사를 창건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륵 삼존이 나타났던 못을 메워 가람을 지음으로써 불교를 진흥시키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백제의 국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용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인물들은 신화적 영웅들로서 건국의 시조가 되는데, 무왕은 백제가 망해 가던 시기에 30대 왕위에 올라 미륵사를 완공하여 백제를 다시 중흥시키려 했던 인물이었다.

3) 황금의 존재

서동은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선화공주가 내어 놓은 황금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요?”라고 묻자, 선화공주는 “이것은 황금인데, 이것으로 한 평생 부자로 살 수가 있다.”고 하였고, 서동은 “내가 어릴 적부터 마를 캐던 곳에 진흙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하였다.”그러자 공주는 “이것은 천하에 지극한 보배이니, 당신이 지금 금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이 보물을 부모님이 계시는 궁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신력으로 신라 궁중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익산의 인접 지역인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는 채금하던 곳이 수십 곳이 남아있다. 지금도 금구면에서는 겨울철에 沙金を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동이 말한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진흙더미처럼 쌓여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익산의 왕궁면 왕궁리 유적도 백제 무왕 때의 유적지로 추정되고 있

다.6) 이 터에 백제 공방지 시설이 있었고, 여기에서 그 당시 유리도가니와 금도가니에서 유리와 금 제품이 가공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현재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연동 마을에 있는 옛 못은 용샘이라 불리며, 근처에는 서동이 많은 금을 얻었다는 五金山이 있고, 그가 왕이 된 뒤에 어머니를 위하여 지었다는 五金寺터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五金山에서는 현재도 야생 마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

4) 師子寺와 知命法師

지명법사는 서동설화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현재 미륵산(용화산) 정상밑에는 獅子菴이 남아 있는데, 글자가 <삼국유사>와 다른 獅子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3년 사자암을 헐고 새로운 불사를 일으킬려고 할 때에 사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백제와 통일신라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암막새기와가 현재 전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기와는 師子寺로 기록되어 있고, 至治二年(1322)이라는 중국연호가 찍혀 있는 銘이 나와 현재 獅子菴이 서동설화에 나오는 師子寺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銘文으로 보아 사자사는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자사에 거주하던 지명법사는 서동이 발견한 황금을 신라 진평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미륵삼존불이 나타난 큰 못을 메꾸어 미륵사를 짓도록 도운 스님이다. 이 知命法師는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신라의 智明法師와 동일 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시대의 스님이고 신통력 행사 등의 행적이 유사하며 <해동고승전>에 따르면 신라의 지명법사가 어디서 입적했는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역사적 소재를 설화로 재구성하여 백제와 신라의 불교적 사회통합을 꾀한 측면이 강하다고 논의되고 있다.7) 반면에 신라의 智明法師는 뛰어난 행적을 드러내었지만 현실정치에도

6) 익산 미륵사 석탑에서 백제 무왕시대(639)에 제작된 사리장엄구가 발견됨에 따라, 1965년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연꽃 무늬 문양이 미륵사 사리호의 같은 모양이라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백제 용화산 사자사에 거주하면서, 미륵사와 같은 대규모 佛事를 일으켜 백제의 국력을 소진시켜 백제 멸망을 주도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⁸⁾

2-2. 설화적 사실의 기록

1) 무왕탄생담

백제 30대 무왕과 관련되는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三國史記 27권 百濟本紀 武王

이름이 璋이니 法王의 아들이다. 풍모가 영특하고 志氣가 뛰어났다. 법왕이 즉위하였다가 이듬해에 돌아가니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3년 8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 阿莫山城을 포위하였다. 신라 眞平王이 정예 기병 수천명을 보내어 항전하니 백제 군사들이 전세가 불리하여 돌아왔다..... 35년 2월에 王興寺가 낙성되었다. 왕흥사는 江水에 임하고 채색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는데, 왕이 늘 배를 타고 절에 가서 분향하였다.

7) 임기중, 『새로 읽는 향가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19쪽.

8) 김영수, 「서동요, 역이용 당한 참요」, 『삼국유사와 문화코드』, 일지사, 2009.

나) 三國遺事 紀異 武王

무왕(古記에 武康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백제에는 武康王이 없다.)

제 30대 무왕의 이름은 璋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서울의 南池란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게 되었다. 아명은 薯童이니 기량이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는 평소에 마를 캐어 팔아 생업을 삼았기에 나라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삼국사기에는 法王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흠어미의 자식이라 하였으니 자세하지 않다.)

다) 高麗史 57권 地理志 金馬郡

본래 馬韓國(後朝鮮王 箕準이 衛滿의 난을 피하여 바다로부터 남하하여 韓地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馬韓이라 하였다) 으로 백제 시조 濫祚王이 이름을 병합하니 그 뒤로부터 이름을 金馬渚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고 고려에 이르러 내속하였다. 충혜왕 후 5년에 元 順帝 奇皇后의 외향이므로 올려 益州라 하였다. 彌勒山石城이 있다.(민간에 전하기를, 箕準이 처음 쌓았기 때문에 箕準城이라고도 한다.) 또 後朝鮮의 武康王과 妃의 능이 있다.(세상에서는, 末通大王陵이라 하는데, 일설에는 백제 武王의 小名을 薯童이라 한다.)

라) 新增東國輿地勝覽 33권 益山郡

馬龍池 : 五金寺 남쪽 백여보 되는 자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薯童大王의 어머니가 築室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彌勒寺 : 龍華山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무강왕이 인심을 얻거 마한국을 세우고, 하루는 선화부인과 더불어 사자사에 행하고자 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렀는데, 세 미륵불이 못 속에서 나왔다. 부인이 임꿈께 아뢰어 이 곳에 절을 짓기를 원하였다. 임금이 허락하고 知命法師에게 가서 못을 메울 방술을 물었더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으로 못을 메워 이에 불전을 창건하고 또 세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조원하였는데, 석탑이 극대하여 높이가 여러 길이나 되어 동방의 석탑 중에 가장 큰 것이다.”하였다.

雙陵 : 五金寺 봉우리의 서쪽 수백 보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에는 後朝鮮 武康王 및 비의 능이라 하였다. 속칭 末通大王陵이라 한다. 일설에 백제 武王의 어릴 때 이름이 薯童인데, 末通은 즉 薯童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가)에서는 무왕의 이름은 璋이고 法王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여,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와 치열한 전투를 치루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하였고, 35년에는 王興寺(미륵사)를 낙성하여 자주 배를 타고 절에 가서 분향하였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무왕의 이름은 璋이고 어머니는 과부로 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명이 薯童이고, 항상 마를 캐면서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일연은 무왕의 탄생에 대하여 서두에서는 古本의 기록을 고쳐서 武康을 武王으로 고쳤다. 이로 보아 고본의 기록은 ‘武康王’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法王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흙어미의 자식이라고 해서 자세하지 않다고 고증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王曆’에서는 武王을 武康이라 부르기도 하고, 小名을 ‘一耆篩德’으로 쓰고, 본문에서는 ‘薯童’으로 쓴 것도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으로 보아, <삼국유사>의 무왕조의 이야기는 실제 무왕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고, 몇 가지 설화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서사형태로 보인다.⁹⁾ 즉, 異類交婚이라든가, 혼인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 설화(온달 이야기), 횡재하여 부자가 되는 이야기(숫구이 총각 이야기), 사찰연기설화(부석사, 금산사, 통도사) 등이다.

다)에서는 金馬郡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면서, 後朝鮮의 武康王과 왕비의 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末通大王陵이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백제 武王의 小名을 薯童이라 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후조선의 箕準을 武康王이라고 하였고, 민간에서는 武康王, 末通大王, 武王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觀世音應驗記> 백제기사에서는, “百濟武廣王遷都, 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貞觀 13년은 무왕 40년(639)이므로, 武廣王은 武王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武廣王, 武康王 등의 음이 축약되어서 武王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⁰⁾ 그리고 後朝鮮 武康王과의 관계는 後朝鮮 때도 武康王이

9)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288쪽.

10) 노중국, 「삼국유사 무왕조의 재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1986. 5쪽.

있었고, 백제 武王도 武康王으로 불리웠을 것이라 추정되기도 한다.¹¹⁾

라)에서는 益山郡에서 馬龍池, 彌勒寺, 雙陵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즉, 마룡지는 서동의 어머니가 집을 짓고 살던 곳이고, 미륵사 창건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축약하여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쌍릉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기록을 옮겨 놓았다. 이상의 기록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익산군> 기록에서도 <고려사>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위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과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父系에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무왕은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유사>에서는 과부가 못의 용과 관계하여 서동을 낳았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원자나 장자 혹은 둘째 아들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무왕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즉, 威德王은 聖王의 元子, 惠王은 聖王의 둘째 아들, 法王은 惠王의 長子, 武王은 法王의 아들, 義慈王은 武王의 長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보아 무왕은 외아들이거나 후궁 출신 비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궁의 소생이라면 ‘어머니가 홀로 되어 못에 있는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위덕왕 때 법왕이 왕손의 신분으로 과부를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기에 서동이 무왕이 되기까지는 모계가 뒤틀리지 않아 정치적인 배경이 취약했음을 살필 수 있다.¹²⁾ 그의 왕위 계승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위덕왕은 598년에, 혜왕은 599년에, 그리고 법왕은 600년에 죽게 되는데, 2년 동안에 세 명의 왕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암투나 귀족 세력들의 견제로 인한 정치적 변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왕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사기에서는 法王의 아들이라 하였고, 유사에서는 池龍의 아들이라 하였다. 무왕이 용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한 것처럼 신이 한 출생담을 가지게 되었다. 무왕은 역사적 인물에서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 시켜줄 영웅적 인물로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용은 신성한 존재로 무왕은

11) 최용수,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 20호, 배달말학회, 1995. 300쪽.

12) 최래옥, 「서동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163쪽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량이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어려서부터 힘겹게 생활하게 된다. 항상 마를 캐서 생활하였고, 마침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백제 3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2)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왕대에 백제와 신라는 10여 차례 이상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투로 인해 무왕의 왕권은 강화되어 갔다. 설화상에 나타난 것처럼 서동이 백제 땅에서 얻은 많은 황금을 신라 진평왕에게 보내고 선화공주의 환심을 사고 민심을 얻어 백제왕이 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더군다나 진평왕에게는 장녀 德曼, 차녀 善花, 삼녀 天明이 있었는데, 진평왕의 차녀 善花가 무왕과 혼인을 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서동설화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일설에는 백제 동성왕 15년에 신라에 청혼하여 신라의 이찬 比智의 딸을 맞이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들어 서동을 동성왕에 비의하기도 하였다.¹³⁾ 앞서 살펴본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하던 중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 기록에 나오는 선화공주는 설화적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화공주는 무왕의 정비가 아니고 무왕의 후궁일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서동설화의 주요 내용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마를 캐던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로 들어가, 서동요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여,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혼인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설화에는 바보 온달 이야기나 숲구이 총각 이야기 등이 있다. 서동설화는 숲구이 총각 생금장 유형¹⁴⁾에 더 가까운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총각은 가난한 집에서 숲 굽는 일로 생활하면서 흠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처녀는 유복한 집안의 셋째 딸이다. 셋

13) 이병도,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4)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5-1. 숲구이 총각 생금장(백제 무왕형).

째 딸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 숲구이 총각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총각이 몰라보았던 금덩이를 발견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형성 시기를 삼국 통일 이후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 즉, 현재에도 무왕이야기가 전승되는 익산과 부여 지역을 토대로 백제문화권에서 이 이야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에는 망국 후 영웅을 회고하고 기대하는 백제 민중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제 유민들은 신라 정권의 권력의 힘을 의식하여 이 이야기 속에 신라 진평왕과 선화공주를 등장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혼인은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 때의 국혼성취로 인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소원성취담으로 보기도 한다.¹⁵⁾ 그리고 고본의 기록을 근거로 설화를 살펴보면, 서동요의 작자는 마한 건마국의 무강왕이며, 일연이 무강왕의 설화를 백제 무왕의 사실로 잘못 기록하였다고 논의되기도 한다.¹⁶⁾

일연 스님이 紀異편을 마무리 하면서 백제 武王과 후백제 甄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駕洛國記를 기술한 것은 나름대로 편찬의도가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의 軼事遺聞들을 기록하면서 신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은 백제문화권과 가야문화권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 30대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혼인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백제문화권에서 백제 민중들의 소망이 투영된 설화로 널리 구비전승되다가 기록화되었다고 여겨진다.

3) 지명법사의 神力

<삼국유사>에 수록된 불교설화에는 스님들의 神力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생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惠空, 惠宿 스님이나, 도술을 부려 지팡이를 마음대로 부리던 良志 스님, 피리를 잘 불어 달도 멈추게 하였던 月明師 등이

15) 임기중, 앞의 책, 21쪽.

16) 김성기, 「일연이 편술한 薯童譚의 誤述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있다. <삼국유사>는 주제별로 편목이 이루어져 있는데, 義解편은 고승들의 전기와 영험 이적을 기술하였고, 感通편은 일상 속의 인간이 비일상적인 계기나 탁월한 실천을 통해 신비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백제 무왕조는 紀異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신화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서 종교적 상징과 사상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일연 스님은 불교 설화를 통하여 스님들의 영험과 이적을 나타내보임으로써 불교신자들이 佛心을 두텁게 하고, 신자들의 수행을 독려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동설화에서도 지명법사는 두 번의 신력을 발휘하였다. 서동이 모아두었던 황금을 모아 신라 왕궁으로 보내주었고, 무왕과 선화공주가 용화산으로 가는 도중에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그 곳에 미륵사를 짓고자 할 때에 연못을 하룻밤 사이에 신력으로 메꾸어 미륵사를 짓게 한 것이다. 심지어는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미륵사를 짓게 한 것도 지명법사에 의한 조작으로 보기도 한다. 즉 대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信心의 發揚을 위해 圖讖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¹⁷⁾ 그러나 지명법사의 神力은 불교 고승들의 영험 이적을 담은 설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역사와 설화의 통합

<삼국유사> 紀異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설화도 역사와 설화가 통합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설화집인 <수이전>과 고승들의 전기인 <해동고승전>, 그리고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상징과 불교 사상, 그리고 역사적 사실등 세 축이 균형있게 고려되어 서술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서동설화는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이 서로 관련되는데, 이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설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무왕을 동성왕이나 무령왕, 무강왕 등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서동은 池龍의 아들로 태어나 마를 캐며 생활하다가, 서동요를 통해 선화공

17) 김복순,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한국불교문화사상사』상, 1992,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58~160쪽.

주와 혼인을 하고, 백제왕이 된 이른바 하층민들의 신분상승욕구가 반영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서동설화는 근본적으로 역사와 설화가 통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트로 바라보아야 설화의 의미가 잘 드러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 30대왕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혼인했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당시 신라에서 적대국가인 백제에 선화공주를 시집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서동설화의 형성 시기는 신라와 백제가 병합된 통일 이후로 보기도 한다. 즉 이 이야기에는 망국후 영웅을 회고하고 기대하는 백제 민중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소재를 설화로 재구성하여 백제와 신라의 불교적 사회통합을 꾀한 측면이 강하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서동설화에서 서동이 마를 캐던 곳에 금이 흩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익산의 인접 지역인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는 채금하던 곳이 수십 곳이 남아있고, 겨울철에는 沙金을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륵사터인 연못을 知命법사가 하루밤 사이에 神力으로 메꾸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과 불교적 영험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즉 미륵사지는 발굴 과정에서 습지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미륵사터는 연못을 메꾸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사자사는 미륵산에 있는 절로, 知命법사는 사자사에 거주하면서 불교의 영험과 이적을 보여준 고승으로 그려져있다.

서동설화는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무왕은 아버지인 법왕의 불심에 감화를 받아 익산 지역에 왕흥사(미륵사)를 세우게 된다. 왕흥사는 창건한지 34년만인 634년에 완성되었고, 당시 백제인들이 작성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설화적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의 무왕조의 이야기는 실제 무왕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고, 몇 가지 설화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서사형태로 보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武王은 法王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외아들이거나 후궁 출신 비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궁의 소생이라

면 ‘어머니가 홀로 되어 못에 있는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왕이 용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한 것처럼 신이한 출생담을 가지게 되었다. 무왕은 역사적 인물에서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영웅적 인물로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어려서부터 힘겹게 생활하게 된다. 항상 마를 캐서 생활하였고, 마침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백제 3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Ⅲ. 서동요의 기록화 양상

서동요는 무왕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夜矣卯乙抱遣去如

이를 양주동은 다음과 같이 해독하였다.

선화공주니른/늬 그스지 얼어두고/ 맛둥바을/ 바리 몰 안고 가다

위에서 양주동은 ‘卯乙’에서 ‘卯’를 ‘卵’의 俗體로 보아 ‘몰’로 보았고, 남풍현은 ‘모를(마를)’로 보았다. 김완진은 ‘卯’를 ‘卵’으로 보아 ‘알’로 보았다. 이 부분은 서동요에서 해독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삼국유사>의 판본 가운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인 中宗壬申年 刊本을 보면 ‘卯’字를 ‘卯’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駕洛國記>에서 ‘黃金卯六圓如日者’로 되어 있어서, <삼국유사>의 같은 글자의 용례로 볼 때에 ‘卯’를 ‘卵’字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薯童房乙에 대해서 양주동은 房을 남자를 가리키는 접미사로 보았고, 김완진과 남풍현은 ‘乙’을 목적격이 아닌 처소를 나타내는 말로 보아 ‘서동의 방으로’라는 의미로 읽었다. 이러한 해독의 차이는 노래 말의 의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서동설화의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동요>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하여 두고
서동의 방으로
밤에 알을 안고 가다.

서동요는 사녀가 형식의 노래와는 다른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래이다. 그러나 <삼국유사> 기록에서는 무왕이 지은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

서, 개인의 창작 가요인지, 구비전승되던 민요인지 논란이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대체로 무왕이 창작한 노래로 보았으나, 후대 연구자들은 서동이라는 인물이 구비전승되던 동요에 서동과 선화공주를 넣어 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노래를 서동설화 속에서 읽지 않고 노래 자체만을 가지고 부를 때에도 이 노래의 동요적 성격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현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인,

열레플레리 열레플레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어디어디서 무엇한대요¹⁸⁾

라는 노래와 비슷한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동요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비전승되던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누구는/ 남 그윽히 정을 통하여 두고/
누구를/ 밤에 알을 안고 간다네/

이러한 노래는 어린 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동요로, 이러한 노래에 이름만 바꾸어 넣으면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배경설화에서는 서동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머리를 깎고 국경을 넘어 신라 서울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한 노래로, 서동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래말에서는 오히려 선화공주가 주체적으로 서동서방님과 만나는 관계로 그려져 있어서 흥미를 더해 주고 있다. 여기서 알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즉 '알을 안고 간다'는 것은 당시의 어떤 은어 내지는 비유적 표현일 것이라고도 하였고,¹⁹⁾ 알은 남성의 고환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⁰⁾ 이 노래

18) 박노준,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2003. 46쪽.

19)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6. 96쪽.

20) 서재극, 『신라가요의 어휘연구』, 계명대출판부, 1975.

2010년 10월 30일 경상대학교에서 배달말학회에서 발표중, 안동준 교수님은 이

는 노래말 자체가 갖고 있는 興味素로 인해 오랫동안 익산과 부여지방에서 구비전승되다가 신라 사회에까지 전파되어 일연스님에 의해 기록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서동요는 어법이 매우 단순하여 직설적 진술에 불과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서정시로 보기는 어렵고 서동이라는 한 총각이 선화공주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모험을 성취한 사랑의 주가²¹⁾나 신분의 차이를 呪歌의 呪力으로 극복하려는 시기²²⁾로 보기도 하였고, 사회의 변혁이 예상될 때 그 결과를 예언하는 참요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 보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서동요는 하층민들의 신분상승 욕구가 반영된 노래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불교적 성격을 가진 노래로 파악하여 선화를 미륵선화로, 서동을 미륵으로 이해하여 미륵하생 신앙을 표현한 노래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서동설화 기록화 양상과 서동요의 기록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동설화는 근본적으로 역사와 설화가 통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트로 바라보아야 설화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서동설화를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사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에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서도

부분에 대한 해석은 경상도 방언에 주목하여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이 부분은 ‘밤에 아를 안고 간다’라고 해석하여 서동과 선화공주가 혼외정사로 ‘아이를 낳아 밤에 안고 간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를’이라는 의미로 노래를 불렀다면 향찰 표기를 ‘卵’자를 쓰지 않고 ‘兕’자를 썼을 것이라 추정된다.

21) 이재선, 「신라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22)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23) 윤영옥, 「서동요」,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입증이 되고, 미륵사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륵사터가 습지였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서동이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흩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라 여겨진다. 즉, 익산과 인접한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는 채금하던 곳이 수십 곳이 남아있고, 지금도 금구면에서는 겨울철에 沙金을 채취하고 있다. 師子寺 거주했다는 知命法師은 서동설화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현재 미륵산(용화산) 정상말에 있는 獅子菴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명법사가 거주했다는 師子寺와 같은 절임이 확인되었다.

서동설화에서 설화적 사실은 무왕의 탄생담과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 지명법사의 신력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武王은 法王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외아들이거나 후궁 출신 비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궁의 소생이라면 ‘어머니가 홀로 되어 못에 있는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왕이 용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한 것처럼 신이한 출생담을 가지게 되었다. 무왕은 역사적 인물에서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영웅적 인물로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신화적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어려서부터 힘겹게 생활하게 된다. 항상 마를 캐서 생활하였고, 마침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백제 3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서동설화는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무왕은 아버지인 법왕의 불심에 감화를 받아 익산 지역에 왕흥사(미륵사)를 세우게 된다. 왕흥사는 창건한지 34년만인 634년에 완성되었고, 당시 백제인들이 작성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따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설화적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당시 신라에서 적대국가인 백제에 선화공주를 시집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서동설화의 형성 시기는 신라와 백제가 병합된 통일 이후로 보기도 한다. 즉 이 이야기에는 망국후 영웅을 회고하고 기대하는 백제 민중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고, 당시 민중들의 脫 가난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국가 사이의 국혼의 성취는 동성왕과 소지왕 때의 국혼성취로 인한 우호 관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소원성취담으로 보기도 하였다.

미륵사터인 연못을 知命법사가 하루밤 사이에 神力으로 메꾸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과 불교적 영험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즉 미륵사지는 발굴 과정에서 습지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미륵사터는 연못을 메꾸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知命법사는 불교의 영험과 이적을 보여준 고승으로 그려져있다.

서동요는 사녀가 형식의 노래와는 다른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래이다. 그러나 <삼국유사> 기록에서는 무왕이 지은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서, 개인의 창작 가요인지, 구비전승되던 민요인지 논란이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대체로 무왕이 창작한 노래로 보았으나, 후대 연구자들은 서동이라는 인물이 구비전승되던 동요에 서동과 선화공주를 넣어 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 노래를 서동설화 속에서 읽지 않고 노래 자체만을 가지고 부를 때에도 이 노래의 동요적 성격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현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인 ‘얼레폴레리’라는 노래와 비슷한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다. 서동요는 오랫동안 익산과 부여지방에서 구비전승되다가 일연스님에 의해 기록화되었는데, 노래말의 내용 가운데 ‘ㄸ乙’은 <삼국유사>의 같은 글자의 용례로 볼 때에 ‘알을’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서동요는 사랑의 주거나 사회 변혁을 예언하는 참요, 하층민들의 신분상승 욕구가 반영된 노래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불교적 성격을 가진 노래로 파악하여 선화를 미륵선화로, 서동을 미륵으로 이해하여 미륵하생 신앙을 표현한 노래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 참고 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익산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법왕, 의자왕조.

『삼국유사』권 2, 무왕.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5-1. 숲구이 총각 생금장(백제 무왕형).

- 김복순(1992),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한국불교문화사상사』상, 가산불교 문화진흥원. 1-20
- 김상현(1982),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한국사연구』 38호, 한국사연구회. 1-26
- 김성기(2003), 「일연이 편술한 서동담의 오술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31-251
- 김영수(2009), 「서동요, 역이용 당한 참요」, 『삼국유사와 문화코드』, 일지사.
- 김완진(1986),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 김종진(2004),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34-259
- 김학성(1977),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연구』2, 서울대 국문과. 193-216
- 남풍현(1983), 「서동요의 卯乙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 노중국(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노중국(1986), 「삼국유사 무왕조의 재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 박노준(2003),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 서재극(1975), 『신라가요의 어휘연구』, 계명대출판부.
- 양주동(1987),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이병도(1973),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49-68
- 임기중(1998), 『새로 읽는 향가 문학』, 아세아문화사.
- _____(1981),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 윤영옥(1986), 「서동요」,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 최용수(1995),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 20호, 배달말학회. 289-318
- 최래옥(1986), 「서동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황패강(2001),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Abstract>

The Study On a way in which Seodong Seolwha has been recorded

Byun, Jong-Hyun(Kyungnam University)

Seodong Seolwha is basically a mixture of history and folk tale, and its text reveals what a folk tale is. *Seodong Seolwha* can be considered from two viewpoints; a history and a folk tale. *Samguk Yusa* (a collection of legends, folk tales, and historical accounts relating to Goguryeo, Baekje and Silla) recorded that King Mu(the thirtieth king of Baekje Dynasty) established Mireuksa(a Buddhist temple), whose site used to be a marsh. It was found out while the site was excavated. A historical story has been told that a great mass of gold had been piled up at the place where Seodong had digged out yams. Jimyoung, a buddhist monk, who had stayed at Sajasa (a temple), was a main character in *Seodong Seolwha*. While Sajaam around the top of Mt. Mireuk (Mt. Yongwha) was excava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temple was the same place as Sajasa where he had stayed.

Seodong Seolwha have some elements of folk tales ; the birth story of King Mu, the marriage of King Mu and Princess Seonwha, and the divine power of Jimyoung monk. Even though *Samkuk Sagi* recorded that King Mu had been a son of King Beob, he might have been an only son or a son of royal concubine. If he had been a son of royal concubine, the story of *Samkuk Sagi* could be true. It says, 'My mother was widowed and then she gave birth to me with a dragon living in a pond'. Like other mythical heroes, he also had supernatural birth story that he was born with the spirit of dragon.

Seodong Seolwha in *Samkuk Sagi* contains a tale about the establishment of Mireuksa. According to the record, King Mu was impressed by his father, King Beob's devotion to Buddhism so that he built Wangheungsa(Mireuksa, a temple) in Iksan. In 634 Wangheungsa had been finished 34 years later since it started to be built. According to records which Baekje people had written for keeping sarira relics

at that time, Mireuksa was established by King Mu's wife who was a daughter of Sataekjeokdeok(沙七積德), a high-ranking official. Therefore, Seonwha princess could be a character in a folk tale. Therefore, Seonwha princess could be a character in a folk tal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marriage of King Mu and Seonwha princess and to understand the marriage between King Mu and Seonwha princess who had lived in hostile countries, Baekje and Silla. It has historically been told that Jimyoung monk filled up the pond, a site of Mireuksa for a night. The story was the mixture of a historical fact and a buddhist miracle. It was revealed during excavation that the Mireuksa site used to be a marsh, which was filled up to build the temple. According to the record, Jimyoung was described as a monk who had a buddhist's miracles and wonders.

Seodongyo is a folk song style, not a sanoega style. *Samkukyusa* recorded that it had been composed by King Mu.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had been created by an individual or had been handed down orally. Early researchers thought that Seodongyo was created by King Mu but later researchers presented that a Seodong adapted a traditional children's song for Seodongyo by adding Seodong and Seonwha princess. Apart from Seodongyo in *Seodong Seolwha*, this song is a children's song style in itself. In other words, this song has the similar words and structure to 'eoleri koleri', a children's song which today's children sing. Seodongyo had been handed down in the region of Iksan and Buyeo for a long time until it was recorded by Ilyeon monk. '勿乙' among words of the song can be interpreted as 'aleul' according to its use of *Samkukyusa*. Seodong can be variously analyzed as a song for love, a song which predicts the change of society, and a song to reflect a desire that common people want to move up in their position. When this song is classified as having a buddhist feature, Seonwha is regarded as Mireuk Seonwha from the view point of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Dosan Sibigok> and Seodong as Mireuk. As a result, this song could be considered as a song to express a religious belief that Mireuk appeared in the world.

논문 접수 : 2010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

게재 확정 : 2010년 11월 25일